

대덕밸리 기업, 독일 진출 길 연다



세계적 대기업인 독일의 뢰스트사가 대덕밸리를 비롯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독일 및 유럽 진출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뢰스트 산업단지에 지난 3월 18일 ‘한-마인 비즈니스 센터(HMBC)’를 건립하고 한국기업 유치에 나섰다. 뢰스트사는 자신들의 주력 분야인 화학 제약, 생명공학과 함께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를 사업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유치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뢰스트사와 함께 ‘한-마인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 한국측 파트너는 DUCC 전요섭 대표와 e커뮤니티 정회훈 대표. 정회훈 대표는 “비즈니스 센터에는 뢰스트사는 물론 세계적 기술검증 및 이전 기관인 슈타인바이츠 재단(독일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산·관이 참여해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덕밸리 기업들의 입주를 유치하기 위해 4월 6일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등과 함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뢰스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기술개발과 마케팅, 법률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이 2년간 무상으로 제공돼 독일 및 유럽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인 비즈니스 센터’의 종합관리와 입주기업에 대한 마케팅 등을 담당할 DUCC의 전요섭 대표는 “비즈니스 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독일 라인마인 지역은 32만여 개의 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유럽 경제의 중심지”라며 “첨단기술력을 가진 대덕밸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의 최적지로 기업 성공을 적극 후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3월 31일 독일의 대표적 연구소인 프라운 호퍼와 함께 대덕밸리 기업들의 기술력 검증을 위한 상호 협력 각서를 체결해, 지역 기업들의 독일 진출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신제품 신기술

한국인식기술, “명함 관리 이젠 스캔만하면 끝”



대덕밸리 벤처기업 한국인식기술(대표 송은숙)은 명함을 스캔하고 자동적으로 명함의 글자를 텍스트로 변환한 뒤 개인정보파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하이네임(Hi-Name ver2.0)을 출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자인식기술(OCR)을 응용한 ‘하이네임’은 100%에 가까운 명함글자 인식율과 스캐너 기종에 상관없이 명함을 자동적으로 스캔, 명함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기능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시판되는 몇몇 명함인식 소프트웨어 제품은 명함전용스캐너를 통해서만 명함을 처리할 수 있다. 반면 ‘하이네임’은 명함전용스캐너는 물론 복합기, 평판스캐너, 포토스캐너 등 해상도 300dpi이상의 스캐닝 기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명함을 자동 입력할 수 있다.

한국인식기술은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된 일반스캐너형과 명함전용스캐너 기기가 부가적으로 구성된 제품 등 2종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은 일반형이 8만원, 전용스캐너형이 14만원이다.

명함을 스캐닝하여 자동 입력한 명함파일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인쇄하거나 프로그램 상에서 그룹, 개인별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고, 엑셀 등 다른 형식의 파일로 저장 활용할 수 있다.

송은숙 대표는 “명함을 많이 받거나 관리하는 고객관리와 영업 및 비서업무 등 분야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비즈니스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